

천연기념물이 된 귤나무

귤나무는 오랫동안 제주에 뿌리를 내려왔다.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진상품으로, 오늘날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과일로 유명세를 탔다. 제주를 상징하는 귤나무는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도련길 | 제주시 도련1동 1730-3 ~ 제주시 도련1동 2293-7(약 0.7km)

매촌안길 | 제주시 도련2동 644-1 ~ 제주시 도련2동 1811-2(약 0.5km)

당주길 | 제주시 도련1동 1515-1 ~ 제주시 봉개동 2607-2(약 1.9km)

불택길 | 제주시 도련1동 1583-1 ~ 제주시 도련1동 1200-1(약 1.2km)

건석길 | 제주시 도련1동 1082-1 ~ 제주시 도련1동 1103(약 0.5km)

밤낭골길 | 제주시 도련1동 1055-1 ~ 제주시 화천동 2648-2(약 0.5km)

음나물내길 | 제주시 도련1동 127-1 ~ 제주시 도련1동 1121-3(약 0.6km)

봉개동길 | 제주시 봉개동 1943-4 ~ 제주시 봉개동 1954-1(약 0.8km)

동오름길 | 제주시 봉개동 1732-1 ~ 제주시 봉개동 1705-3(약 0.5km)

대련길 | 제주시 봉개동 2292-1 ~ 제주시 봉개동 1096(약 1.4km)

동화천길 | 제주시 화천동 1274-2 ~ 제주시 화천동 1183-1(약 0.4km)

서화천길 | 제주시 화천동 2866-6 ~ 제주시 화천동 2219-7(약 0.9km)

생목수원로 | 제주시 도련1동 1586-1 ~ 제주시 화천동 1191-2(약 2.4km)

고사리길 | 제주시 화천동 2004 ~ 제주시 화천동 1783-1(약 1.5km)

도련길 / 매촌안길 | 천연기념물이 된 굴나무



천연기념물 굴나무

도련길은 도련동 마을의 지명을 반영하여 부여한 이름이다. 사방으로 길이 나 있다는 의미를 가진 도련동(道連洞)은 1동과 2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도련 1동은 농사가 잘되고 마을이 평온해서 도련드르라고 불렸고, 도련2동은 마을의 지형이 매화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매촌이라 불렸다. 도련동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굴나무들이 있다. 당유자나무, 병굴나무, 산굴나무, 진굴나무 등 4종류 6그루의 나무는 100년에서 200년 정도 된 굴나무이다. 이 나무들은 오래전부터 제주에 재배되었던 굴나무의 원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여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를 대표하는 굴은 예전부터 제주를 방문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추사 김정희는 매화와 대나무, 연꽃, 국화는 어디에서든 볼 수 있지만 굴은 제주의 전유물이라고 하면서, 굴의 우뚝 선 지조와 꽃답고 향기로운 덕을 높이 사 자신의 유배지를 굴중옥(橋中屋)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굴피는 약재로도 쓰이곤 했는데 껍질을 말려서 오래 둔 진피는 기를 순행시키고, 땀이 잘 나오게 하고, 가래와 습기를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구역질, 구토, 딸꾹질을 막고, 소화를 잘되게 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맛이 없는 경우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매촌이라 불리던 도련2동에는 **매촌안길**을 비롯한 마을의 길들에 옛 지명이 반영되어 있다. 매촌에는 풍수지리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 매촌마을에 조방장이라는 부자가 살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조방장은 지관을 데리고 무덤을 쓸 땅을 보러다녔다. 지관은 언덕 아래 자리를 소개해 주면서 이곳에 묘를 쓰라고 했다. 조방장은 답답하고 자리도 좁아 별로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몇 번에 걸친 지관의 권유에도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지관은 널찍하고 탁 트인 곳을 소개해 주었다. 조방장은 그곳이 마음에 들어 아버지 묘를 쓰기로 했다. 그런데 조방장집 하인 중 한 명이 조방장이 거절한 자리에 자신의 아버지의 묘를 쓰고 싶어 했다. 조방장은 탐탁치 않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렇게 각자 묘를 쓰고 시간이 흘렀다. 이후 하인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조방장의 집은 점점 가세가 기울어졌다. 지관이 처음에 알려준 곳이 아주 좋은 명당이었던 것이다. 이후 조방장은 하인집에 곡식을 얻으러 가는 처지가 되었고 하인은 옛 정을 잊지 않고 전 주인을 극진히 대접했다고 전한다.

당주길 / 불택길 / 전석길 / 밤낭골길 / 음나물내길 | 도련 본향당과 불태기뭇

도련길 남쪽으로 이어지는 **당주길**은 도련을 지켜주는 당이 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이 본향당은 도련1동에 마련된 4·3위령비의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신목은 3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자리를 지켜왔다고 한다. 오래된 신목이 뿜어내는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영험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1991년에 당을 정비한 후 세운 비석에는 이곳이 마을이 생기고 700년 째 이어져 오는 제사 터라고 밝히면서 후손들의 번영함을 기원하고 있다. 본향당의 신은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역할을 했다. 지금도 매년 제를 지내면서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당주길과 나란히 이어지는 **불택길**은 불태기뭇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길이다. 이 연못에는 문수량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온다.

도련 본향당

조선시대 도련에 살던 문수량은 마치 장수처럼 풍채가 좋았다. 그는 제주목사와 친분이 있었는데 제주목사가 혼자서 산에 자주 다녀오는 것을 알고 수상하게 여겨 뒤를 쫓았다. 제주목사는 월평동의 한 지점에 이르러서 연신 참 좋다는 말을 하며 감탄하는 것이었다. 문수량은 그곳이 아주 뛰어난 명당임을 알게 되었다. 마침 아버지의 묘자리를 구하고 있던 그는 제주목사에게 자신의 아버지 묘를 그곳에 쓰고 싶다고 부탁했다. 몇 번을 거절하던 제주목사는 마지못해 이곳에 묘를 쓰고 나서 100일 동안 치성을 드릴 것을 당부하고 허락을 했다. 그 후 문수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곳에 묘를 쓰고 그 옆에서 100일 동안의 치성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99일째 되자 솟아나는 힘을 주체할 수 없어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갔다. 문수량은 자신에게 아무도 모르게 궁궐에 드나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몰래 궁궐을 드나들며 경비병들을 골리는데 재미를 붙였다. 궐에서는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있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골치였다. 며칠을 그렇게 지내던 문수량은 집안 사정이 궁금해 편지를 썼다. 그런데 자신을 임금처럼 ‘짐’이라 하고, 아내에게 중전이라고 한 것이다. 이를 받게 된 집안의 하인은 깜짝 놀라 관아에 신고를 해버렸다. 궁궐에서는 드디어 침입자의 정체를 알고서는 피를 써서 문수량을 잡아들였다. 그리고 명당이라는 문수량 아버지의 묘를 찾아 깊이 파게 한 후 솟불을 피워서 열흘 넘게 태우게 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이곳을 문소랭이 불칸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당주길, 불택길처럼 도런동의 길들 중에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길들이 있다. 삼봉로와 생목수원로 사이에 나 있는 길들 중에 **건석길**은 이 지역에 돌이 많이 쌓여 있는 돌빌레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제주어인 빌레는 너럭바위라는 뜻이다. 화산섬인 제주는 용암이 흘러가면서 다양한 지형을 만들었다. 그 중에 빌레는 비교적 평평한 지형을 이루는 곳이다. 해안가에서는 이 돌들을 이용해 소금밭을 만들기도 했다.

건석길 남쪽에는 **밤낭골길**이 지난다. 밤낭은 밤나무를 부르는 제주어이다. 이 지역이 예전에 밤나무가 많아 밤낭골이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한다. **건석길, 밤낭골길**과 만나는 **음나물내길**은 이 지역을 지나는 음나물내를 의미하는 이름이다. 한라산에서 발원한 하천줄기가 이곳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하천을 음나물내로 불렀다. 평소에는 건천으로 물이 흐르지 않지만 비가 많이 내렸을 때는 강한 물살이 흐르기도 한다.

봉개동길 / 동오름길 / 대련길 | 봉개동

봉개동길은 봉개동(奉蓋洞)의 마을 명칭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려시대 이곳에는 봉씨 성을 가진 선비가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그 선비는 평생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자 굴과 같은 방묘를 만들어서 기름과 불을 들고 들어가 불이 꺼지게 되면 입구를 막아달라고 했다고 한다. 봉개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봉개동길이 시작되는 봉개초등학교 인근에는 봉아오름이 자리잡고 있다. 이 오름은 ‘봉개오름’ 혹은 ‘붉은오름’이라고도 불리는데 봉개오름은 봉개동에 있는 오름이라는 의미이고, 붉은오름은 오름을 구성하는 흙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데에서 유래했다. **동오름길**은 봉아오름 동쪽 봉우리와 가까이 나 있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봉아오름은 예전에 분화구 안에 봉천수를 저장해 두었고 이 물을 이용해 주변에서 논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지금은 이런 흔적은 사라지고 오름 정상에 대기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봉개동길과 이어지는 **대련길**은 인근에 대련천이라는 하천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예전에는 갯배리물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이 하천은 상류에서는 대룡소천이란 이름으로 불리면서 봉개동과 용강동의 경계를 이루고, 하류에서는 삼수천이라 불리면서 화북동과 삼양동의 경계를 이룬다.

동회천길 / 서회천길 / 생목수원로 | 회천동과 석상

봉개동의 서쪽에 자리한 회천동은 동회천과 서회천의 두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동회천길과 서회천길**은 두 마을로 진입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그 중 동회천은 예전에 새미라고 불렀는데 마을에서 사용하던 새미물에서 유래했다. 이 물은 수량이 풍부해 이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이 생겨났다. 집안에 수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동회천 서쪽으로 나 있는 **생목수원로** 따라가다 보면 화천사라는 절이 나오는데, 이곳은 고려시대 사찰인 화천사가 있었던 자리라고 한다. 이름은 똑같지만 예전의 절은 폐사되었고, 지금의 사찰은 1960년대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의 절이 폐사되자 이 자리에 돌로 다섯 개의 석불을 만들어 놓고 모셨다. 이 석불들은 전통적인 불상의 모습이나 성문을 지키던 돌하르방의 모습과는 또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돌의 모양을 살리면서 생생하게 얼굴의 표정이 묘사되어 있다. 이 석불을 모신 덕분에 회천동은 전염병 등에서 빗겨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회천동에서는 매년 이 석불에서 마을제를 지내는데 불교적인 성격인 석불을 대상으로 유교식 마을제를 지내면서 신들도 함께 모시는 무속 신앙이 절묘하게 융합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회천동 석상

고사리길 | 제주 고사리

서회천길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고사리길**은 고사리무루길이라고 부르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도 하는 고사리는 예전에 췌채라는 이름으로 왕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었다. 특히 제주고사리는 다른 지역의 고사리보다 품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제주도는 봄이면 고사리를 채취하는 사람들로 산과 들이 북적인다. 제주에서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며칠 동안 내리는 비를 고사리장마라고 한다. 이 시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고사리철이 오기 때문이다. 고사리는 한 번 꺾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홉 번까지 다시 솟아난다고 한다. 그래서 제주에 ‘고사리는 아홉 형제’라는 속담이 있다. 그렇지

만 고사리를 채취하는 것에도 금기가 있는데 묘 안에 있는 고사리는 꺾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 사람들은 이렇게 채취한 고사리를 제사 때 사용하기도 하고 주변과 나눠먹으면서 친분을 나누기도 한다.

